

英서 AI 발병...유럽 초긴장!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치명적인 H5N1형...칠면조 2,500여마리 폐사 EU, 6일 전문가 대책회의 등 추가 확산 차단 총력

헝가리에 이어 영국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유럽에서 AI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동부 서퍽의 로우스토프에 있는 한 칠면조 농장에서 사육하는 15만9천마리의 칠면조 가운데 2천500여마리가 죽었으며, 잉글랜드 웨이브리지에 있는 EU 실험실에서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의 H5N1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국의 가금류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스코틀랜드의 야생 백조에서 첫 H5N1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달 헝가리에서도 남동부 겨우 농장에서 H5N1 바이러스가 발견돼 9천4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크로아티아 등 인근 국가들이 헝가리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 환경부는 이번 발견된 AI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최근 헝가리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H5N1형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AI 바이러스가 칠면조 22개 우리 중 한 곳에서만 발견됐지만 방역을 위해 15만9천마리의 칠면조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5N1 바이러스는 2003년 이래 전세계에서 164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관망했으며, 인간 사이 전염이 가능한 변종이 나타날 경우 수백만명의 목숨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하루 동안 2차례 비상대책위원회(COBRA)를 열고 AI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집중 논의했다.

EU 집행위도 성명에서 오는 6일 27개 회원국 수의학 및 식품 전문가 대책회의를 열고 영국의 발병 및 대처 사례를 점검하고 AI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



‘백두산 세리머니’ 패러디 중 인터넷 등장 논란 확산

지난달 31일 제6회 창춘(長春)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벌인 ‘백두산 세리머니’ 사진에서 ‘백두산은 우리의 땅’을 ‘화성도 우리의 땅(火星也是我們的)’으로 바꾼 패러디 사진이 최근 중국의 최대 검색사이트인 ‘바이두(百度)’의 연변(延邊) 게시판에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양=연합뉴스】

부시, 군축 비확산 담당 차관에 39세 존 루드 지명

美 외교가 “X세대가 벌써 차관” 경악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2일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차관 후임에 39세의 존 루드 차관보를 지명하자 워싱턴 외교가가 경악했다.

첫째는 국무부 주변에서 조지프의 후임에 케네스 브릴 전 국가확산대책센터(NCC) 소장이 될 것으로 본 다 수설이 틀렸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그가 차관보로 임명된 것이 불과 지난해 10월로 보기 드문 초고속 승진이라는 점, 셋째는 그가 40세도 안된 이른바 X-세대라는 점 때문이다.

중국계 어머니를 둔 루드 차관보는

애리조나주립대학 출신으로 부시 행정부 들어 조지프의 뒤를 계속 이어 온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조지프가 국가안보회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아래서 NSC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을 맡았을 당시 루드는 그 밑에서 부국장을 맡았고, 조지프가 국무부로 옮겨자 비확산 담당국장을 이어 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10월 다시 조지프 아래의 차관보로 들어갔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루드의 차관 기용은 라이스 장관이 백악관에서

함께 일했던 그를 각별히 신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루드는 불턴-조지프를 잇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협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한’ 협상파로 불리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보는 대북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통과 후 이 결의를 다른 확산군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결국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이란에 대해 똑같이 적용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라크 최악 민간인 폭탄 테러...420여명 사상

“北 생화학무기시설 32곳 운영”

美 과학전문지 보도

북한은 최소한 20곳의 생화학 무기 시설과 12곳의 화학 무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 무기 재고량이 5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미국의 과학기술 전문지인 ‘포플러 미캐닉스’ 2월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 정부의 정보 보고서 등을 인용, 북한이 지난 1987년 3월 이후 세균무기금지협약(BTWC) 서명국임에도 ‘5기계 공업총국’ 주도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해왔다고 “북한 정권은 평안북도 정주 등 최소한 20곳에 생화학 무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12개 공장에서 화학 무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탄저균을 극미한 분말로 같이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목표 지역에 낮은 고도로 순항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용해 이를 분사하는 공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정일 “킬맹은 21세기의 바보”

흡연·음치 등 바보 3인 꼽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핵 무기 외에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깊으며, 흡연, 음치와 함께 킬맹을 21세기의 바보 3인으로 꼽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자 최신호에서 ‘이상하지만, 연결된 북한의 인터넷’이란 제목으로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e-메일 주소를 물어

주위를 놀라게 했을 정도로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전하는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보면,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외부와 단절된 국가인 북한은 2000년 국내용으로 광섬유케이블망을 구축해 전국적인 인터넷을 열었다.

물론 월드와이드웹은 아직 대부분 일반인에게 비공개 구역으로 남아 있다. 단지 수천명만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은 외부 인터넷 자료를 약탈해서 북한 연구소, 공장, 학교에 기술 정보를 보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런던=연합뉴스】

美 플로리다 ‘살인폭풍’ 강타

19명 사망...비상사태 선포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중부 지역에 2일 오전(현지시간) 토네이도성 ‘살인 폭풍’이 불어닥쳐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가옥들이 거의 모두 무너지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토네이도와 유사한 거센 폭풍은 이날 새벽 레이크 카운티를 비롯해 인근 볼루시아, 쉘터 카운티 등을 차례로 강타해 놀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도로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가옥들의 단전사태가 이어졌다.

미리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 압사했다. 2일 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9명이지만 구호활동이 본격화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찰리 크리스트 플로리다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



리의 최우선 목표는 피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BC와 NBC 등 주요 공중파 방송들도 피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구호단체들의 움직임과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들의 구호 활동을 집중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인도 자카르타 대홍수 60% 침수...이재민 19만명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최근 5년 사이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자카르타시 당국은 최근 수일 동안 내린 비로 5년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시 전체의 60%가 물에 잠기고 7명이 숨졌으며 1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수티요소 자카르타 시장은 “앞으로 수 일간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기상당국의 예보에 따라 ‘최고 경계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파크마트 윌비아트 환경부장관은 “자카르타의 홍수가 잦은 것은 시 당국이 환경 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저지대에 쇼핑몰 건축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시 당국을 비난했다.

【방콕=연합뉴스】

2007년 신 재생에너지지열 시스템 국가 보조 사업 안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

1. 보조대상 사업
 - 지열 온수 및 냉수 시설을 통한 난방 또는 냉방 시설
 - 지열 온수 및 냉수 시설을 통한 온수 및 냉수 공급 시설
 - 지열 온수 및 냉수 시설을 통한 온수 및 냉수 공급 시설
 - 지열 온수 및 냉수 시설을 통한 온수 및 냉수 공급 시설
2. 지원 대상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 지원 대상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 방법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대상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 보조금 지급사업 (지열지열 시스템)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매월 초 개강

- 1. 중국어 회화
- 2. 중국어 문법
- 3. 중국어 발음
- 4. 중국어 쓰기
- 5. 중국어 읽기
- 6. 중국어 듣기
- 7. 중국어 말하기
- 8. 중국어 이해하기
- 9. 중국어 표현하기
- 10. 중국어 이해하기

한국어: 02-233-9582

리듬자이나 中国語学院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